

윤석열 대통령,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참석

대통령,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로서 국립외교원 역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오전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친필 휘호를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예측 가능성을 결여한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얻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해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기념식 후 대통령은 38명의 신임 외교관 후보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관 후보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후보자들에게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외교관 후보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단호하고 의연하게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국립외교원 정원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반송 한 그루를 심었다.

오늘 기념식에 정부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국회에서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상민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으며, 이 외에도 전·현직 외교 안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서울시, 가을맞이 '농부의 시장' 개장, 도심 곳곳에서 만나요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마포구 DMC, 청계광장 등 서울 시내 6개소에서 전국 60여개 시·군 100여 농가가 참여하는 '2023년 하반기 농부의 시장'을 개장한다.

농부의 시장은 각 지자체에서 엄선한 우수 농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로 하반기 첫 개장은 두타물 광장에서 9월 1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3년 농부의 시장은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도심 속 직거래 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청계광장 등 6개소에서 27회 운영된 2023년 상반기 농부의 시장은 62,947명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4억 6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6색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심 6개소에서 다채로운 테마로 문화행사가 운영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 농가들에게는 정기적인 판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심 곳곳에서 농부의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동해안 마린머드, 해양바이오·뷰티산업 신소재 부상!

동해안 마린머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실증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 동해안 일대에 다량 산재한 것으로 알려진 마린 머드(일명 마린 펠로이드)가 해양바이오·뷰티산업 신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울진군, 환동해산업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동으로 동해안 마린머드 해양바이오소재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1일 '동해안 마린머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실증사업' 중간보고회에서 보습과 주름 개선, 항산화, 항염, 미백 등 뛰어난 효능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해양바이오·뷰티 산업화를 위해 △국제·국내 원료등록 △공정개발 △효능평가 △제품개발 등 크게 4개 분야에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화장품 원료 소재에 대한 정제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개발을 지난 7월 완료했고, 이와 연계한 효능평가는 11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에서 뷰티소재가 가장 큰 중국에서 지난 8월 28일 원료등록을 마쳤으며, 글로벌 표준인 미국은 11월까지 등록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에 9월까지 원료등록을 목표로 효능평가를 분석하며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 지정 화장품 임상시험 공인기관인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 의뢰한 효능분석에서는 기존의 양성대조군 보다 훨씬 뛰어난 효능(보습 67%, 주름 개선 105% 증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뷰티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마스크팩, 딥클렌징 등 기초 뷰티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지역 화장품 회사의 임상시험 결과 참여자 99% 이상이 미백 및 보습 등에 효과를 보았다고 답변했다.

경북도는 동해안 마린머드가 치유성 점토로서도 충분한 산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단계 뷰티 관련 실증사업이

완료되면 테라피와 의료제품 개발 등을 국가지원 사업화 방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도 동해안 마린머드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소재 상용화 플랫폼을 동해안 지역에 구축할 예정으로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해머드의 경우 연간 경제적 가치만 1조 원이 넘는다"면서 "앞으로 동해안 마린머드가 기능성 뷰티산업, 치유산업, 메디컬 등 부가가치 높은 바이오소재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농산업 협력 네트워크로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견인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박람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최근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2023 국제박람회' 성공개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2023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와 회원 대상 홍보 등 상호 상생 발전을 위한 사항에 대해 공동 협력기로 했으며, 생산 농업인단체와 협업을 통한 농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첨단 농기계를 비롯한 최신 농산업 발전 현황을 쉽게 접하지 못했던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신기술과 농업인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을 주제로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치유농업 주제관, 치유농업 체험관, 홍보판매관 등 3개 구역 12개 전시판매장에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24가지 체험과 다양한남도 친환경 먹거리가 더해진 오감 만족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전남도농업기술원장)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 상호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관람객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한 박람회가 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GCCF 광주문화재단 

제28회 남한산성문화제

다시, 찬란한 남한산성

9.15-9.17 남한산성도립공원 일원

www.nsart.or.kr



경계지역 전문가 김홍구 도의원, 전국 최초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계지역 발전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에 기여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이 8월 29일 행정정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고 9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상북도 경계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발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대표발의 한 김홍구 의원은 "경계지역은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여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경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지역별 개발계획, 지원, 위탁 및 대행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발의에 앞서, 김홍구 의원은

2022년 7월 도의원에 당선된 후 경상북도의회에서 경계지역 연구등록단체를 만들어 경계지역 관련 연구용역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홍구 의원은 "앞으로도 경계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경계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연구단체,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서울시의회 연구단체,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소속 의원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김원중)는 8월 31일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과제착수보고를 듣고 의원간담회를 진행했다.

영세한 규모의 하청업체 위주인 패션·봉제산업에 대해 연구하여 서울의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12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봉제업 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제안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사)지역사회연구원(대표 김찬수, 경제학 박사) 손영기 책임연구원(경제학 박사)의 용역 착수보고로 시작했으며, 서울의 봉제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일감부족, 낮은 부가가치와 사업 운영에 어려움 등 소상공인 현황과 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전달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연구단체 소속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태수 의원, 신복자 의원, 남궁영 의원, 심미경 의원, 옥재은 의원은, 윤기섭 의원은 보고발표에 대해 지역의 영세한 봉제 업체의 현황과 협회와의 관계 및 패션허브, 봉제세루션엔커, 스마트엔커 등 서울시 집적지역 지원사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대표의원 김원중(성북2, 국민의힘)은 "용역의 착수 전에 각 지역구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라고 말하며, "서울시 봉제 사업을 위한 조례개정 및 정책 제안 등 최대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연구단체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향후 ▲봉제산업 연구용역 중간 보고 ▲현장 방문 ▲집행부와의 간담회 ▲결과 보고 및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부산시의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성공적 임무 수행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 및 우호협력 강화

유라시아 대장정 공동단장(김효정, 성장용 의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올인!

부산광역시의회는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1박1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과 성장용 의원을 공동단장으로한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등과 우호협력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방문도시별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 및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유라시아 대장정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기리는 기념 추모행사, 부산 시스터블리지인 110번 유치원 방문 교류행사, 현지 정부 관계자 및 청년과 교류하는 '친선의 밤'행사를 진행했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을 기념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과 부산 중앙고 농구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리바운드'를 해외 최초로 상영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과

'부산-사마르칸트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 주요도시와의 협력관계 구축과 도시외교 외연 확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11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파리 국제대차촌 한국관 앞 잔디마당에서 파리시민을 대상으로 부산데이 인(in) 파리행사를 열었으며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려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부산데이에서는 한국 음식 시식, 한복입기 체험, 부산 관광홍보, 케이팝(K-POP)댄스 대회, 동아대 태권도팀의 멋진 퍼포먼스 등을 통해 부산에 대한 매력을 유감없이 알리면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동단장으로 참석한 김효정 의원은 "이번 유라시아 대장정의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대장정을 통해 해외에서 한류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한 계기가 됐다"고 밝히



며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부산의 도시외교적 위상을 드높이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에도 한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성장용 의원은 "가는 곳마다 대원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방문도시 관계자들에 대단히 감사

드린다. 이번 여정을 통해 방문도시들과의 우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홍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준 대원들과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봉화군의회, "추석선물은 우리 농축산물로" 소비장려 캠페인 참여

봉화군의회 의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지역 농가와 축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김상희 의장은 이어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농·축산업계의 고충은 크다. 특히 무더위와 수해로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군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축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상희 의장은 "추석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는 선물로 봉화군의 농축산물을 선택하면, 지역 농축산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몽골 대구·경북 연수 실사단 대구시의회 방문

향후 지속적으로 몽골 기업인 등의 대경 연수 추진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이재화, 손한국 의원은 8월 31일 오후 4시 대구시의회를 방문한 몽골 HR클럽 일행과 면담을 가지고 몽골 기업인들의 대구 연수를 환영했다.

몽골 HR클럽(Human Resource Manager's Club)은 몽골의 인사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2012년에 결성되어 현재 약 16,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NGO(비정부기구)로 대기업, 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R클럽의 이번 대구 방문은 몽골 기업인들의 대구·경북 연수 및 의료·문화관광 교류 추진을 위한 사전시찰과 협의, 몽골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한파크골프협회와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대구에서의 의료관광을 시작으로 첨단산업현장 방문, 파크골프 교육, 문화관광 등 4박5일 일정을 소화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몽골 기업인 등의 대구·경북 연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몽골 기업인들의 대구·경북 연수를 적극 환영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대구의 맛과 멋을 맘껏 즐겼으면 좋겠다"며, "문화,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인천시의회, 시민의 눈높이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는 11월 3일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 수집

인천광역시의회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의 눈높이로 감시하고, 적극 개선을 위해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1월 중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2달여 동안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민제보는 인천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시정 및 교육·학에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며, 참여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방

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사항과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시민과 함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가오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총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시의회 홈페이지, SNS, 인천 e음 앱, 시청 소식지 등을 통해 접수된 시민제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남/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대선 (112)	문 화 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대선 (113)	사 회 부:대선 (117)
	경 제 부:대선 (114)	오 폐니업부:대선 (118)
	스 포츠부:대선 (115)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최만식, 국중범, 방성환, 이서영, 전석훈, 문승호 도의원과 함께 성남시 정책과제 추진 논의

의정정책추진단·성남지역 도의원, 성남시와 머리 맞대고 26개 정책과제 살펴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1일 성남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성남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성남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최만식(민·성남2), 국중범(민·성남4), 방성환(국힘·성남5), 이서영(국힘·비례), 전석훈(민·성남3), 문승호(민·성남1) 의원 등 성남지역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성남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성남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논의 과정에서 최만식 의원은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이 필요한 만큼 의회에서라도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국중범 의원은 "지역주민 생활권

내 작은 도서관 확충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방성환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을 위한 시설 확충,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슬럼화가 진행 중인 단독주택 재정비 규제 완화를 위해 도의회도 관련 연구와 대책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장년층 창업 활성화와 성장단계인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도의회도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 활성화로 청년의 배움과 도약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성남시가 공동의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이진찬 성남부시장은 "성남시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단장은 "성남시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인 만큼 지역 내 정책 수요

도 분야별로 상당히 다양하다"며 "경기도 각 실·국과 유기적 협의를 이어가며, 정책과제들이 실타래를 풀어가도록 염종현 의장에게도 지역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태길 단장은 "성남시의 26개 정책들의 실현이 성남시의 발전,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각 정책이 타성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윤태길 의원, 성남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이진찬 부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 4차산업추진단장, 재정경제국장, 아동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환경보건국장, 도시계획과장, 교통도로국장, 공원과과장, 도서관사업소장, 법무과장, 의회협력팀장 등 총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범상/기자

의정정책추진단, 최만식·국중범·방성환·이서영·전석훈·문승호 의원과 함께 성남시 정책과제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1일 성남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성남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성남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최만식(민·성남2), 국중범(민·성남4), 방성환(국힘·성남5), 이서영(국힘·비례), 전석훈(민·성남3), 문승호(민·성남1) 의원 등 성남지역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성남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성남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논의 과정에서 최만식 의원은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이 필요한 만큼 의회에서라도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국중범 의원은 "지

역주민 생활권 내 작은 도서관 확충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방성환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을 위한 시설 확충,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슬럼화가 진행 중인 단독주택 재정비 규제 완화를 위해 도의회도 관련 연구와 대책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장년층 창업 활성화와 성장단계인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도의회도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 활성화로 청년의 배움과 도약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성남시가 공동의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이진찬 성남부시장은 "성남시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



한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단장은 "성남시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인 만큼 지역 내 정책 수요도 분야별로 상당히 다양하다"며 "경기도 각 실·국과 유기적 협의를 이어가며, 정책과제들이 실타래를 풀어가도록 염종현 의장에게도 지역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태길 단장은 "성남시의 26개 정책들의 실현이 성남시의 발전,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각 정책이 타성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윤태길 의원, 성남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이진찬 부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 4차산업추진단장, 재정경제국장, 아동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환경보건국장, 도시계획과장, 교통도로국장, 공원과과장, 도서관사업소장, 법무과장, 의회협력팀장 등 총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범상/기자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1일(금)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문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지난 8월에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이기인 의원은, "최근 분당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인故김혜민양의 경우에 사건이 발생하고, 가족분들께서 긴급한 상황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성남시의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는 중앙정부 대책과 국회 법령의 개정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 안전 정책을 강화시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학대동물 구출' 함께한 김동연 '대한민국 동물복지 수준, 경기도가 한 단계 높일 것' 도,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1일 화성시 팔탄면의 한 개 번식장에서 '학대동물' 약 1천410마리 구출

경기도가 지난 1일 한 동물보호단체가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구출한 개 약 1천410마리를 도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해 보호 조치했다.

보호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 동물보호단체의 누리소통망(SNS) 제보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려 진행된 것이다. 동물단체는 '어미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동물 학대가 있고, 안락사시키거나 죽은 강아지들의 사체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뒷산에 매립했다'고 김동연 지사에 제보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경기 반려마루'에서 생존 동물 구출·이송 상황을 함께하며 "끔찍한 현장에서 구출된 개들을 경기 반려마루로 이송하고 있다", "경기 반려마루는 아직 정식 개관 전이지만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즉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즉각 출동했고, 축산동물복지국이 현장에서 개들을 보호했다"며 "대한민국 동물복지 수준을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 변화의 중심 경기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인계해 보호한다. 정식 개관을 앞둔 경기 반려마루가 위기에 처한 동물을 긴급 보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생존 동물을 보호 시설별 배치 완료하고, 전염병 및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입양을 추진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입양 활성화 캠페인도 중점적으로 펼친다. 1천 400마리 이상의 개를 화성시 번식장에서 경기 반려마루 등 동물 보호시설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 등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동물복지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불법 도살 현장을 연이어 적발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1천410마리 중 737마리는 도가 직접 보호 및 지원하는데, 경기 반려마루(여주)가 583마리,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가 104마리를 각각 직접 보호한다. 나머지 50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보호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도가 직접 보호·지원하는 개 외에는

김범상/기자

유경현 의원, 경기도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최근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면서,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손혜광(사)만사소년 실장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란 소년법의 목적을 생각할 때, 촉법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회복과 자립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청소년회복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독서·인문학, 여행, 축구단 운영 등 회복지원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양성, 웹툰교육 등 여러 진로체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은영 사회적기업(주)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은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 성장 가

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국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자신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기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영석 부천시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 천중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범상/기자

인천시, 실향민의 화합과 희망 다지는 이북도민 문화축제 개최

9월 16일과 17일, 중구내항8부두,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려

인천광역시 9월 16일과 9월 17일 각각 중구 내항8부두와 강화평화전망대에서 2023년 인천 이북도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이북도민의 문화 홍보와 계승 발전의 장을 마련해 이북도민의 사기를 높이고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로, 인천에 거주하는 약 3천200여 실향민의 역사성과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올해 축제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될 예정인데, 인천 지역 내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시민은 물론 이북5도사무소를 통해 전국의 이북도민들을 초청해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1일 차인 9월 16일에는, 중구 내항 8부두에서 오후 1시부터 이북무형문화재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유공자 표창, 주요 인사 축사, 실향민 노래자랑 등의 본행사가 진행되며, 안보전시관 및 이북놀이 문화체험, 인천 옛 모습 사진 전시

전 등 다양한 연계 행사가 진행된다.

2일 차에는 9월 17일 강화제적봉평화전망대(망배단)에서 전국의 이북도민들과 함께 고향에 두고 온 부모형제와 자녀들의 강연을 지원하고, 사라져가는 제례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추석맞이 이북도민 망향제를 개최한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평화와 중전을 기원하는 문화축제를 통해 실향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이북도민 문화 축제와 함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 300만 시민이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명실 공히 1,000만 국제도시 인천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에는 인천 전역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음식문화박람회, 푸르드 디엠지(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단축 마라톤 대회, 호국보훈 거리행진, 인천상륙작전 특집 평화기원 음악회(가요무대) 등 다양한 행사와 키퍼런스 등이 진행된다.

김종남/기자



용인특례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용인온마켓 추석맞이 할인행사

30일까지 40% 할인쿠폰 사용해 최대 4만원 할인

용인특례시가 추석맞이 오는 30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용인온마켓'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용인온마켓은 곡류와 채소류, 농산 가공품 등 용인지역 20여 개 농·업체에서 생산한 80여 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할인행사 기간 동안 1인 1매에 한해 1만원 이상 구매 시 40% 할인쿠폰 사용할 수 있고, 최대 4만원까지 할인 적용된다.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에 한꺼번에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조아용 말랑열굴구선(3명), 조아용 리사이클레코백(10명), 용인백옥

쌀 2kg(50명)이다.

용인시티포인트 적립금을 용인온마켓 적립금으로 전환하면 10%의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급한다. 5일부터 21일까지 용인 시티포인트와 용인온마켓 적립금 전환 이벤트 기간에 적립금 전환 인증샷을 네이버 폼으로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용인 시티포인트를 추가로 1만 포인트(10명), 5000 포인트(100명) 제공한다.

김범상/기자



광명시, 탄소중립 선도할 지역 리더 양성한다

통장과 단체원 대상 2023년 '우리 동네 탄소중립 실천 교육' 개강식 개최



광명시는 지난 1일 광명극장에서 통장과 단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우리 동네 탄소중립 실천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2050 광명시 탄소중립도시 선포식' 이후 시의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마을 단위로 구현하기 위해 광명평생학습원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할 지역 리더로서 통장과 단체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강식은 미래세대의 의견을 담은 퍼포먼스와 탄소중립 제안문을 낭독해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서혜승 학생 등 관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여덟 명으로 구성된 광명청소년예술단이 펼친 퍼포먼스는 환경과 자연의 경계를 담았다. 또한 환경보호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강소윤 학생 등 중현중학교생

네 명이 '아름다운 지구 살리기'라는 제목의 탄소중립 청소년 제안문을 낭독하고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박승원 시장에게 전달했다.

박승원 시장은 "시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시민체감도가 높아지려면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통장과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단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울러 단체원들의 의제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며 "2050 탄소중립 도시 광명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은 개강식을 시작으로 통장과 단체원 310명을 13개 그룹으로 나누어 세 달간 14명의 탄소중립 전문 강사와 3명의 퍼실리테이트가 이끌어 간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그룹별 주요 실천 주제를 바탕으로 ▲맹소영 기후칼럼니스트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의 기후변화와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안내(1강) ▲합리적 소비를 통한 쓰레기 저감과 자원순환(2강) ▲도시숲 보전을 통한 탄소흡수와 친환경 경이동(3강) ▲친환경 먹거리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 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대안(4강) ▲탄소중립 마을 사례를 통한 동네별 특성애 맞는 실천지도 만들기(5강) ▲그룹별 학습 결과 공유 및 동별 실천 대안 계획(6강)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최근 탄소중립 역량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상위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201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후에너지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또한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광명자치대학에 기후에너지학과를 개설해 탄소중립 실천 리더를 키우는 등 시 전 부서가 협력하여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왔다.

윤용민/기자

광주시, 개학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광주시는 가을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고자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며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82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과 관련 공무원 등 8명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학교 주변 문방구, 슈퍼마켓, 학교 매점, 편의점,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조리 및 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향후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조용의 부천시시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부천시, 관계기관 협업 및 예방 교육 통해 마약 범죄 예방·근절 앞장



조용의 부천시장은 지난달 31일 마약 범죄 예방·근절 공동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범국민적으로 일깨우고, 마약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자가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또 다른 참가자 두 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조 시장의 캠페인 참여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명에 따라 이뤄졌다. 조 시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신용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임희원 부천시약사회장을 지목했다.

한편 부천시는 마약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월 부천원미경찰서·부천시약사회·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과 함께 '마약류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애니메이션 공모전 '노! 드럭스 애니모어(NO! DRUGS ANYMORE)'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입상작 7개

를 선정했으며, 각 기관에서 마약류 이용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 시범사업인 '2023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과 '대상자별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용의 부천시장은 "나이야 지역에 상관없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마약 문제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부천시는 마약 범죄를 예방·근절하는 데에 앞장서고, '건강한 부천'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매력 만점 안산을 유튜브로... 국민 MC 강호동 출연 '강호동네방네' 공개

안산시는 인기 유튜브 콘텐츠 '강호동네방네' 안산 편이 안산시 공식 유튜브와 SM C&C STUDIO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고 1일 밝혔다.

국민 MC 강호동이 진행하는 '강호동네방네'는 전국 동네방네 곳곳에 숨은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여행 힐링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노적봉폭포부터 김홍도미술관, 원곡동 다문화특구, 청년몰 등 시내권 명소를 소개하는 1편과 방아머리 해변, 대부관산 퇴적암층, 탄도항 등 대부도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2편까지 총 2편의 콘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해외 및 전국의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최근 안산시 곳곳을 다니며 여행한 방

송인 강호동은 "안산은 놀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삼박자를 모두 갖춘 알짜 여행지"라고 엄지를 치켜세우며 "누구나도 반할 수밖에 없는 멋진 명소가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길 바란다"고 안산시 여행을 강력 추천했다.

강호동은 "특히, 대부도 포도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 농부와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젊음의 기운이 느껴지는 도시"라고 평가했다.

한편, 톡톡 튀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강호동네방네-안산편"은 9월 1일과 9월 8일, 오후 5시에 안산시 유튜브 채널과 SM C&C STUDIO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최정부/기자



서울시, 암행순찰차 100일 운영 성과 분석...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

'23.4월부터 암행순찰차 3대→5대로 증차, 일반도로까지 확대·운영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계도·단속에 효과적인 암행순찰차 2대를 추가 투입하여 기존 3대를 포함한 총 5대로 확대하여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차량 구매 및 운영예산(약 1.2억원)을 확보하여 전기승용차 2대 구매 후 차량 개조 등을 거쳐 올해 초 서울경찰청에 인도했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을 가진 순찰차에 비노출식 경광등, 전광판, 카메라, 스피커 등의 장비를 갖추고 단속 시각지대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차량을 말한다.

암행순찰차 5대는 매일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암행순찰차가 필요한 지역에 1~2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했으며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 단속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륜자동차와 개인용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왔다.

지난 4월부터는 교통사망사고 다발 지역인 강남, 동대문, 관악, 마포, 강서경찰서에 암행순찰차 각 1대씩을 배치하여 운영 중임

특히, 전용도로 중심으로 운영됐던 암행순찰차를 올해부터는 일반도로로 확대·운영하면서 서울 도심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암행순찰차 운영('23.4.15.~7.31.) 결과, 해당 경찰서 교통사망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6.5% 감소(23명→10명)였으며, 교통사고는 10.4% 감소(2,016건→1,806건)였다.

또한 암행순찰차 1대 평균 단속 건수의 경우, 일반 교통순찰차 단속 건수 대비 151.4% 더 많았으며, 특히 이륜차 단속의 경우 180.4% 증가(암행 2,350건, 일반 838건)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율이 높은 이륜차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암행순찰차의 단속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등과 협의하여 내년에도 2대의 암행순찰차 증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암행순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해 가기로 했다.



△도로 전광판, 현수막,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암행순찰차 홍보 활동 전개 △지자체, 아파트 단지, 직능단체 등 유관단체 협조를 통한 홍보 병행 △난폭·보복 운전 등 단속 사례 발굴·홍보 등 암행순찰의 순기능을 지속 홍보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암행순찰차의 계도·단속은 교통법규를 위

경남도, '경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하동군 '저장 강박 가정 쓰레기 정돈 및 상담 연계 등 우수사례' 공유

경남도는 1일 오전 '경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시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통해 경남형 통합돌봄 기본모형을 발굴하기 위한 '시군 및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업무담당자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점검, 우수사례 공유, 10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 일정 협의, 애로사항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사는 곳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말에 시군 공모를 통해 7개 시군(사천, 김해, 의령, 함안, 창녕, 하동, 거창)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3월 우수 시군 벤치마킹, 4월 통합돌봄 자문단 구성 및 사업 컨설팅이 완료되어, 5월부터 대상자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8월 현재 사례관리를 통한 욕구조사 완료 대상자는 2,120명으로 이들에게 주거환경개선, 심리상담, 식사지원, 병원 동행 등 개인이 필요한 돌봄 3,500여 건을 지원했다. 이외 공유 냉장고나 경로당 방문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이용자도 6천여 명에 이른다.

하동군은 가슴 및 허리를 다쳐 누워

서 지내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저장 강박으로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서00(71세, 남)을 발굴하여 병원 입원 치료를 지원하고, 쓰레기 수거와 정리정돈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병원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재가장기요양보험 신청 등 지역자원을 연계했고, 건강식과 반찬을 지원하여 현재는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역민의 욕구조사를 통해 설치된 공유냉장고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가조면 병산마을은 마을 휴경지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농작물을 공동 재배했고, 수확물을 공유냉장고에 기부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기부나눔문화를 실천하는 복지-고용 선순환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사천군과 창녕군은 돌봄활동가(돌봄리더) 양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와 결연 및 안부 확인 등 든든한 돌봄 인적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주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과 적극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군 우수 사례를 통해 경남형 통합돌봄 기본모형을 발굴하고, 만족도 조사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2026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광명시, 추석 명절 대비 가스사용시설 안전 점검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삼천리와 가스 사용시설 합동점검

광명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삼천리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가스사용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시설 관리 상태 ▲가연성물질 방지 여부 ▲가스 차단기 및 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

가스누출 여부 ▲안전상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는 큰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정에서도 추석 명절 장기간 외출 시에는 가스레인지 꼭과 중간밸브를 꼭 잠그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당부했다.



광명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가스사용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해 103개 점포 중 11개소의 시설 부적합을 확인하여 가스 누설에 따른 밸브 교체 및 미사용 라인 밸브 마감, 호스 라인 교체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및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보수·보강하도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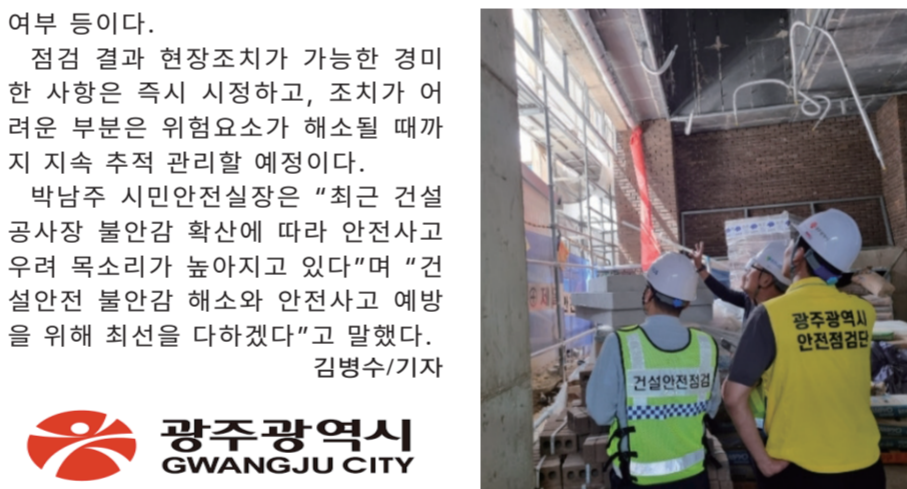
27일까지 공사현장 15곳...추락사고 우려 현장 등 집중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 건설공사장 사망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사현장 15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광주시에서 진행 중인 건축 공사장 가운데 공정률 30~80% 이내, 추락사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장이다. 내실 있는 점검

을 위해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시설(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기준과 존치기간 준수 여부 ▲안전 계획서 적정성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건설공사장 불안감 확산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설안전 불안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광명도시공사
Gwang 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청송군, 항일의병기념공원 재개관 기념 학술회의 개최

청송군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9월 1일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항일의병기념공원 재개관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말 의병활동의 전개와 청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는 한말 의병사 속에서 청송지역이 갖는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한편, 청송의 항일의병 유적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기조강연을 맡은 권대웅 전 대경대학교 교수는 조선후기 청송지역 유림사회의 동향을, 김항기 독립기념관 연구위원은 의병항쟁기 청송지역 의병 연구 현황과 과제를, 신진희 안동대학교 교수는 청송지역 의병사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제발표 이후에는 원광대학교 불교사상연구원 박민영 박사를 좌장으로 강윤정 안동대학교 조교수, 정우석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책임연구원 등 학

계 전문가들과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한말 의병 연구를 심화함과 동시에, 전문 연구자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연구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들은 전시, 교육, 대중 교양서 발간자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후 항일의병기념공원이 청송의 의병사를 넘어 청송의 독립운동사 연구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희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은 “기념관은 앞으로도 항일의병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병 용사들을 발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뜻을 이어가며, 청송의 의병정신을 이어받아 나라사랑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안명희 한별광학 대표 3백만 원 기탁

영양군 고향사랑기부금 1억 달성으로 이어져

올해부터 시행된 영양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누적 기부액이 8월 31일 현재 1억원을 달성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31일 수비면 수하리가 고향인 안명희 한별광학 대표가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300만원을 기탁하면서 총 475건, 1억201만 원이 모금됐다.

총 기부자의 약90%인 430명이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 원 이하 기부부를 했고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23명으로 나타났다. 기부자가 선호하는 담례품으로는 영양사랑상품권이 50%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 26%, 사과 10%, 전통장류 10% 등으로 나타났다.

1억 달성 소식을 들은 안명희 대표는 ‘영양군 고향사랑기부금 1억 달성 현장에 있어 더 뜻깊은 기부가 됐다’며 ‘출향 인구가 타시에 비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는 영양군이 기부금 1억 원을 달성한 데에는 전국 곳곳에 영양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니만큼, 모인 기부금을 영양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을 사랑하고 항상 멀리서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의 정성이 모여져 1억 달성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기부행렬에 매우 감사드리며, 모금된 기부금은 영양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담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영양군 지역 발전에 사용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해외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로 수출 확대 총력

8개국 30개사 해외구매자 초청 중소기업 56개사와 1:1 상담

경북도는 지난 1일 경주 하이코에서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미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 등 8개국 30개사의 해외구매자를 초청해 1:1 수출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 56개사가 참가한 이번 상담회를 통해 경북도는 수출상담 및 계약 추진액 810만불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른 해외 수요 감소와 수출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지역의 해외 구매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상담회는 경북도의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분야 등의 기업이 참가했다.

직접상담과 비대면 상담 형태가 동시에 진행된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103건의 상담과 함께 810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계약추진을 했다.

특히, 현장에서 김정환홍삼(영주) 홍삼, 101마리메트(영주) 여성청결제, 선물마루(경산) 디퓨저, 노랑고래(경산)

화장품 4개 기업은 미국 참가업체와 협약체결을 하고 170만 달러의 현장계약 성과를 거뒀다.

한편, 미국에서 화장품과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대표는 현재 미주지역에서 한국식품(K-FOOD), 한국화장품(K-COSMETICS)이 폭발적인 인기로 고품질의 경북산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번 상담회를 방문했다고 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도 경북도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베트남 구매자는 경북 화장품의 재 구매를 위해 방문했으며, “한국산 화장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베트남에서 호응이 좋아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참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달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새로운 현지 구매자를 발굴하고, 지역의 우수 산품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를 만들어 경북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부산미래유산 테마 투어' 운영

9~10월, 총 4회에 걸쳐 운영

부산시는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부산미래유산 테마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미래유산 테마 투어'는 시민들에게 미래유산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미래유산을 둘러보는 ▲문화 ▲영화·예술 ▲역사 ▲도시 4개의 코스로 구성됐다. 미래유산과 관련한 지역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했으며, 시민들의 미래유산에 대한 흥미와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해 코스별로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9월 23일 '문화' 코스에서는 F1963, 영광도서, 부산시민공원 등을 답사하고, 부산국제공연예술제를 관람한다.

10월 7일 '영화·예술' 코스에서는 부산시민회관, 40계단, 국제시장, 비프(BIFF) 광장 등을 답사하며,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나본다.

10월 14일 '역사' 코스에서는 온천천, 박차정생가터, 동래장터, 동래읍



성(역사축제) 등을 답사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도시' 코스에서는 보수동책방골목, 장림포구, 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 등을 답사한다.

투어는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내일(5일)부터 부산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회차별 2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통합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구순본 부산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테마 투어는 시민들이 다양한 부산의 미래유산을 폭넓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식품을 잇(EAT)다!, 제23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 개최

비수도권 최대 규모 전문 전시회로 223개사(433부스)가 참가

대구광역시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제23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K-FOOD EXPO 2023 in Daegu)'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엑스코 동관(5, 6홀)에서 개최한다.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은 식품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3개사 433부스 규모로 식품 관련 업종들이 '대구 식품전'을 통한 상호 연결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식품을 잇(EAT)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대구는 중소 식품업체들이 해외 시장 판로 확대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바이어 규모를 전년 대비 15% 확대해 16개국 31개사의 바이어를 유치했고, 수출상담회도 종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많은 기업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상담회는 그동안 아시아 중심의 시장에서 미주지역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구매력 높은 바이어 20개사를 유치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한국식품 수입사협의회인 'KOFIA' 소속 8개 회원사도 초청해 동남아와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도 진행하며, 9월 6일에는 대구 식품(D-푸드) 수출 활성화 위해 '대구광역시와 KOFIA'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MOU도 체결한다.

또한, 대구시는 실질적인 수출상담회가 이루어지도록 식품의 특성상 바이어들이 직접 제품을 볼 수 있도록

쇼케이스도 수출상담회장 앞에 새롭게 설치해 상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유통 MD 24개사도 초청해 대형 유통망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식품업체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는 다양한 전시로 업체간 B2B 비즈니스가 되도록 식품 제조뿐 아니라 포장기와 이물질 검출기 등으로 식품기계를 다양화해 전년 대비 92.8% 증가한 27개사로 확대했고, 푸드테크 및 급식·조리기계 업체 등 33개사 신규 유치했다.

이 밖에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 사업 설명회와 역량강화 교육, 포스코 주관 공동투자 설명회, 식품단체 주관 세미나 등도 개최해 업체와 종사자들에게 식품산업 동향과 정보를 제공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이 식품업체의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매력 높은 바이어를 유치해 상담회를 진행하고, 특히 할랄 시장 개척을 위해 '코피아(KOFIA) 협의회'와 MOU도 체결한다”며, “이를 통해 대구의 식품산업 구조가 내수 위주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식품전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9월 9일에는 4시까지 운영되고 사전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축산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돼 지역민들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국제식품산업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원도심도 살리고 청년창업도 돕고”... 경주시,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 ‘착착’

경주시가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5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은 황오동 재생구역 내 우수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팀은 △YELLA!(비건 푸드&베이커리) △여기어떡(쌀 디저트&양금 플라워 케이크 제작) △어령목1250(도자기 및 차 도구) △스카와(가네)(일본식 철판 요리) △플립(업사이클링) 등 5개 팀이다.

팀별로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점포 창업을 위한 지원금 3500만원(자부담 20%)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도 지속적 성장 및 안정화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지원 받는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지난 7월 사업 참여자 모집 당시 총 18개 팀이 접수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10개 팀으로 추렸다.

이 과정에서 예비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 창업 멘토링 △창업 아이디어 구현 구체화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후 지난달 30일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한수원 지역협력실 경주상생부 관계자 및 창업 컨설턴트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심사회를 열고 5개 팀을 선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 사업을 통



해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응원하고 더불어 청년들이 많이 유입돼 황오동 원도심 구역의 상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며 “도시재생지역 내 청년 창업을 촉진시켜 지역 내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상권 간 조화를 통해 원도심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경주시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황오지구 도시재생구역 내 청년창업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경제적 자립, 정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윤타용/기자

경북도,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으로 실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개최, 정책 아이디어 제안

경북도는 지난 2일 청송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주관으로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및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했다.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매년 정책 과제를 선정해 경상북도 청소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발표의 장으로, 올해는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주제로 제안하도록 했다.

총 16개 시군 30개 참여기구가 참가했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참여기구가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벌였다. 본선 대회는 12개 팀 발표자가 각각 정책 제안을 발표한 뒤 5명의 심사위원

이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검증을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높였다.

이날 대회 결과 대상은 “청소년증과 연계한 교통비 지원”을 제안한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재능기부 사이트 운영”을 제안한 영덕군 청소년참여위원회 2개 팀에게 돌아갔다.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중의 기능을 강화해 교통비를 바꾸쳐로 충전해 지원하자”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영덕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직접 강사로 활동하면서 본인의 꿈을 키우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해 운영하자”라는 참신한 내용으로 높은 점수와 호응을 얻었다.

그 외 최우수상은 김천시 청소년참여

위원회, 울진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상은 청송군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등 5팀, 장려상은 영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등 3팀으로 전체 대회에서 총 12개 참여기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우수 정책들은 경북도 각 부서에 전달돼 실무 검토한 후 실현 가능성 있는 청소년들의 정책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책제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소년 경제금융캠프'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실현되어 지난 8월 청도군에서 캠프가 개최돼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었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올

해 본선에 오른 청소년들의 정책이 완성도가 높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많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더욱 발굴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교육 나선다... 9월 접수, 10월 교육

오는 10월 근로자, 대학생, 예비사회인 등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교육 실시

부산시는 오는 10월 청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청년·사회초년생이 사회 경험 부족으로 자칫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7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해 청년·사회초년생 등 전 시민이 교육 동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내 대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바 있다.

교육은 '전세사기 예방법, 대처방법 다 알려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전세사기 유형, 피해예방법, 부동산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다룬다. 해당 분야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해 전문적인 내용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에 참석한 청년들의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률전문 강사도 섭외해 법 지식, 창업 관련 법률 상식, 소송정보 등 생활 법률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생활전선에 있는 근로자, 취업 준비로 바쁜 예비사회인·대학생을 위해 전문 강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

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예비사회인·대학생 등의 재산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사업장, 예비사회인, 대학교 등에서는 교육 장소 및 교육 인원을 확보해 오늘(4일)부터 9월 22일까지 부산시 전세피해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과 시간대는 원하는 장소에서 전문 강사와 협의해 진행된다. 전문 강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실력 있는 강사로 섭외할 계획이다.

10월에 교육 진행 후 교육평가에 따라 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시 청년들이 전세계약 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숙지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전세사기 예방법, 대처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살면서 필요한 법률지식 교육 지원

신청 기간 : 2023. 9. 4(월) ~ 9. 22(금)

교육 대상 : 지역 내 근로자·대학생·예비사회인 등

교육 시기 : 10월 중 '선정 후 일정 조율, 교육 총2시간 소요'

교육 내용 ① 전세사기피해예방 부동산거래·계약 주의사항
② 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 등

신청 방법 : 교육장, 강의실 등 교육장소 및 교육인원(50-100명)

확보 후 대표자(서무직) 지원 신청

지원처 :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 051-888-4251-4)

대구 남구청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8월 29일,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남구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남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여성지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수상작인 독립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영상 시청, 여성 발전 및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부채를 이용한 기념 퍼포먼스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애써오신 여성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매년 개최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일상 속 양성평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양성평등 정착을 위해 영유아돌봄 확대 등을 통한 젊은 세대 유입을 유도하여 일하기 좋은 남구, 여성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봉화군,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대비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점검

적정 유효소독제 사용, 소독제 보관방법·유효기간, 주의사항 준수 여부 점검

봉화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대비하여 봉화를 적격 소재군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 전 거점소독시설의 소독효과 검증을 위한 소독수 적정농도 확인이 필요하고, 동절기에는 소독조 온도제어 방식, 소독수 보관기간, 희석장비의 정상혼합 여부 등에 따라 분무 소독수의 농도변화가 우려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의 주요내용은 적정 유효소독제 사용, 소독제 보관방법 및 유효기간, 제품사용 시 주의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사용 소독제에 대한 적정농도 희석방법에 대한 근무자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엔 채취되는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시료는 냉장상태로 동물용의약품 지정 검사기관인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약품기술연구원으로 보내져 희석배수의 적정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한편,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는 봉화군 거점소독시



설은 2016년 12월 준공된 이래 하루평균 100대 이상의 축산관계차량을 소독하는 군 가축방역의 최일선 전초기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대비하여 실시하는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점검을 통하여 악성가축 전염병 차단방역과 교차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토요일은 ‘선비상회’가 열리는 ‘영주 선비촌’에 오세요”

지난 2일 개장식 개최...11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및 공휴일 운영

경북 영주시는 지난 2일 순흥면에 소재한 선비촌에서 '안민낙도 선비상회' 개장식을 개최했다.

개장식에는 박남서 영주시장,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순흥면 도움 단체장 등 관계자 20여 명과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함께했다. 이날 시 관계자들은 관광객들에게 영주한우로 만든 큐브 스테이크와 홍삼농축액기스를 전하며 선비촌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선비촌을 찾은 관광객 A(여, 75세, 남양주시 거주)씨는 “날씨가 좋아서 외출을 계획하다가 선비촌에서 행사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방문했다”며, “11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행사를 한다고 하니 조만간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광객 B(여, 47세, 서울시 거주)씨는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하니 더 신뢰가 간다”며, “날씨도 좋고 물건도 좋아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샀다”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교완 관광개발단장은 “풍요로운 가을에 선비촌을 방문해 전통가옥이 주는 특유의 고즈넉함도 느끼시고,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적 시장 느낌의 저택거리와 현대적 플라자를 접목한 '안민낙도 선비상회'는 11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추석연휴(추석당일 제외), 공휴일(임시공휴일 제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농특산물을 생산한 농가와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영주의 특산물, 약재, 전통주를 비롯한 다양한 공예품, 기념품, 먹거리 판매와 다양한 전통 체험 등도 함께 진행한다.

윤근수/기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경북” 2023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의지와 실천 다짐



경북도는 9.1~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4일 도청 동관관에서 2023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정해진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날인 9월 1일을 202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이달희 경제부지사, 박영

서 경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내외, 도의원, 지역 기관장을 비롯해 도내 여성 지도자, 다문화 여성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애)가 주관한 기념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경북”을 슬로건으로, 일상에서 평등한 남녀의식을 함양하고 도내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실천을 약속하는 자

리다.

신유식 연주가의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여성상과 양성평등진흥유공자 표창, 외조상 시상, 양성평등 실천 결의문 낭독, 내빈과 참석자가 다 함께 참여해 양성평등에 대한 희망의 빛을 밝히는 풍등 날리기 퍼포먼스, 양성평등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개그맨의 연극 공연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경북의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경상북도 여성상인 △'올해의 여성상'은 김춘화 자연염색 대표 △'양성평등'부문은 이영희 고령군 파크골프협회 회장, 노경순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애원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여성복지'부문은 실성태 우리음식연구원 회장, 최계숙 영양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윤정 울릉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옥분 콤나래 시설장, 김의순 한국자유총연맹 영주시 지회장이 수상했다.

이어 양성평등진흥 유공 표창은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배도연씨 등 18명(개인 13, 공무원 2, 단체 3)이 수상했다.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이 시상하는 양성평등'외조상'은 평소 아내 강필



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장의 사회활동과 능력개발에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을 한 공로로 예천군 김한기 씨가 수상했다.

부대행사로는 양성평등 기념식 축서포토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건강검사 및 상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성별영향평가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 여성일자리 교육사업 안내,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소중립 및 환경보호 등 전시 부스도 운영해 참여자의 호응도를 높였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5일 경북 여성 미래포럼, 6일 경북 양성평등기반 구축 포럼을 개최한다.

9월 한 달간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양성평등 기념식, 4대 폭력 예방 캠페인, 전문가 특강,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념사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보완하고 경력단절예방사업, 일자리 확충, 경북형 돌봄 서비스 확대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2023년 건강키움 체조교실' 운영 “은빛 인생, 체조와 함께 금빛으로 물들다!”

지역 어르신 241명 대상...12월 21일까지 희망키움센터에서 진행

예천군은 4일 오전 9시 30분 예천희망키움센터에서 '건강키움 체조교실' 첫 수업을 시작했다.

건강키움 체조교실은 오는 12월 21일까지 운영하며, 사전 신청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3개 팀(실버팀, 여성팀, 남성팀)으로 나눠 건강체조, 라인댄스, 에어로빅 등 다양한 체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버팀은 매주 월·수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여성팀은 매주 월·수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남성팀은 매주 화·목 11시부터 12시

까지 진행한다.

이날 참여자들을 교육에 앞서 군민 걷기 운동 실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두백이 걷기'를 하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걷기 운동에 참여할 것을 홍보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이번 체조교실은 100세 시대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돕고 운동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 건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금리단길 골목축제 개최...토요일 밤 낭만에 물들다

각산마을 주민·상인이 함께 만든 지역경제 활성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에서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황세주 경기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이승훈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병원장, 황영성 을지대학교 지역협력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공의 정원정책 관련 건의를 위

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 경기도 동북부 의료환경 건의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설립 당시 지역상황 및 설립취지 관련 설명 ▲ 현재 경기 북부지역 의료체계 역할 및 기능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의 운영상황 ▲ 경기 북부지역 전공의 정원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 의료 지원대책 추진과제 중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관련 지방의대 지역인재모집 확대와 전공의 배치연계 방침을 발표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측은 “최근 지역 특성상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인력 확대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경기동북부는 지난 70년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으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속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른 취약인구 지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평균 대비 높으며, 이 중 특히 경기동북부는 북부지역의 다른 자치단체보다 취약인

구비율이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의료교육, 연구 및 진료확대를 통한 북부 의료 발전이 필요하다. 도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인력의 교육과 훈련, 연구 수행 등 수준 높은 진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동북부 의료 확대가 경기도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다. 경기 동북부 지역에 의료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부 암센터 설치, 광역심뇌혈관센터 등에 대한 설치를 고려함으로써 의료공백 및 의료격차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경기 북부 인구 특성상 응급, 심뇌혈관, 외상 등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시 감염병 전문 진료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기자

울진해경, 여름철 어린이물놀이 사고 제로 달성

어린이 대상 물놀이 안전교육(연안안전교실)이 실제 큰 효과로 이어져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울진해양경찰서 연안안전교실'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집중운영 했다고 밝혔다.

연안안전교실은 울진해양경찰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어린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울진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직접 경상북도교육청수련원 및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학생대상 맞춤형 물놀이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8월까지 현재 총 49개소 학교 기관 2,814명을 대상으로 연안안전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장문화/기자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해양경찰의 소개, 홍보, 너울성 파도의 위험성 인식, 위험표지판 소개,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및 심정지 응급처치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진해경관계자는 “올해 코로나 방역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물놀이객이 작년 보다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물놀이 사고 제로화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교육의 힘이 컸다” 며, “앞으로도 학생 물놀이 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활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남해군 '헬스플랜 수립' 중간 보고회 개최

남해군보건소는 지난 8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남해군 헬스플랜 수립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남해군은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보건소 특수 시책으로 '헬스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경상국립대학교가 '남해군 헬스 플랜 수립' 학술용역 업체로 선정됐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요인을 중심으로 중점 연구·분석 중에 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관련 국(소)

장, 부서장등 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에서 그동안 연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성 높은 질환과 앞으로의 용역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 토론했다.

향후 보건소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1,2차 워크숍과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에는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는 남해군 헬스 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준/기자



영덕군,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완비하고 시연회 열어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 無',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총력

영덕군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응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도입해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시연을 한 결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영덕군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비해 지난 28일 방사능 검사장비 설치를 완료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설치된 방사능 검사장비는 감마핵종 분석기 1대, 자동시료 주입장치 1대로, 하루 최대 8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이다. 분석실은 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로하스 수산물지원센터에 구축했으며, 강구수협과 영덕북부수협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서부터 해상어장의 수산물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해 검사체계를 강화했다.

이어 영덕군은 지난 31일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김성식 강구수협장, 김영복 영

덕북부수협장,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연회를 열어 관내 수산물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방사능 물질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덕군은 방사능 물질 허용 기준치(1kg당 100베크렐(Bq))와 무관하게 검사 결과 1베크렐만 나와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한 후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부터 영덕군이 해수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관내 축산항 앞바다를 정점으로 해양 방사성 물질 정기검사와 강구수협 위판장을 대상으로 한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산물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방면의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영덕군 홈페이지, 관내 전광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북도 어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경북바다환경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영덕군은 안전한 수산물 관리와 검사 강화를 하는 한편, 추석 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수산물 할인 판매행사, 영덕송이축제 기간 내 수산물 무료 시식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어업인들의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어업인들의 수산물 검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할 것”이라며, “수산물 검사를 희망하는 관내 어업인은 해양수산과로 문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정정한 영덕

에서 지역 어민들이 피땀 흘려 잡은 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목포시, 시민과 함께 전국체전 개최 대비 청결활동 전개

'2023년 희망찬 목포 만들기(Pink's Mokpo) 마을가꿈' 일환

목포시는 1일 희망찬 목포만들기 실천추진단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전의 개·폐회식이 열릴 목포종합경기장 주변 청결활동을 진행했다.

민선 8기 범 시민운동인 '희망찬 목포만들기'운동의 4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마을가꿈(Image)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 열릴 목포종합경기장 준공식을 앞두고 목포시와 시민운동 실천추진단은 이날, 종합경기장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잡초 제거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요 간선도로변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실시해 대규모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스스로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발적 마을가꿈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의식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양대체전을 계기로 전국에서 수많은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 우리 목포시가 2천만 관광객이 찾는 국제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희망찬 목포, 다시 찾고 싶은 목포를 만들어가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목포종합경기장은 연면적 2만6,468㎡, 지상 3층, 관람석 16,468석의 규모로 완공되어 오는 6일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구례군,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 원,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

구례군은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5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을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6억 원 이하의 구례군 소재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세대이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

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정부·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활력과 인구정책팀(061-780-2618)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오는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전북도 김관영지사,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운동전개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다짐하며 실천운동 동참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1일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관영 지사는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고 플라스틱 없는 전북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담아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들는 영상과 함께 챌린지 참여 글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재했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는 참여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전라북도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운동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와 함께 매일 10

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1회용컵을 줄이고 다회용컵(공용컵) 사용을 늘리기 위해 전주 객리단길을 시작으로 전북대와 원광대 대학로, 남원 시청로까지 4개 거리 50여 개 업소가 참여하는 '제로 플라스틱 전북'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도내 커피전문점과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 생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생활 속 실천 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김관영 지사는 다음 주자로 도내 14개 시장·군수와 함께 서거석 교육감을 지목했다.

이남길/기자



진도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보고회 개최

청렴시책 이행사항 점검...공직사회 청렴 실천 의지 강조



진도군이 9월 1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대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공유와 2023년 외부체감도 측정을 위한 클린콜 조사 결과 파악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대책 논의 등 반부패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청렴도 평가조사를 앞두고 부서별 개선 방안과 청렴시책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청렴도 제고 방안과 공직사회의 청렴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갑질피해신고센터(헬프라인) 운영 등을 통해 청렴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우리 군의 청렴시책 추진 동력 확보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청렴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 공직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화순군 능주면 역사문화관서 "국악 상설 공연"

역사문화관 앞 국악 공연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한 걸음

화순군이 역사문화도시인 능주면 역사문화관 특설무대에서 오는 9월 5일부터 5회에 걸쳐 국악상설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화순군이 주최하고 국악 공연 단체인 프랙탈이 주관하며, 전통국악인 판소리부터 농악, 판전국악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판소리는 윤진철 국가무형문화재, 김향순, 선영숙 전남무형문화재가 공연하고 농악으로는 화순군 향토문화유

산인 능주들소리보존회, 전남무형문화재인 화순한창농악보존회, 우봉리들소리보존회가 공연을 펼친다.

퓨전 국악으로는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가 공연을 펼쳐 새로운 국악 장르를 보여줄 예정이다.

공연은 '능주 장이 서는 날'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내 능주역사문화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일은 9월 5일을 시작으로, 9월 10일, 9월 15일, 10월 25일, 11

월 5일 총 5회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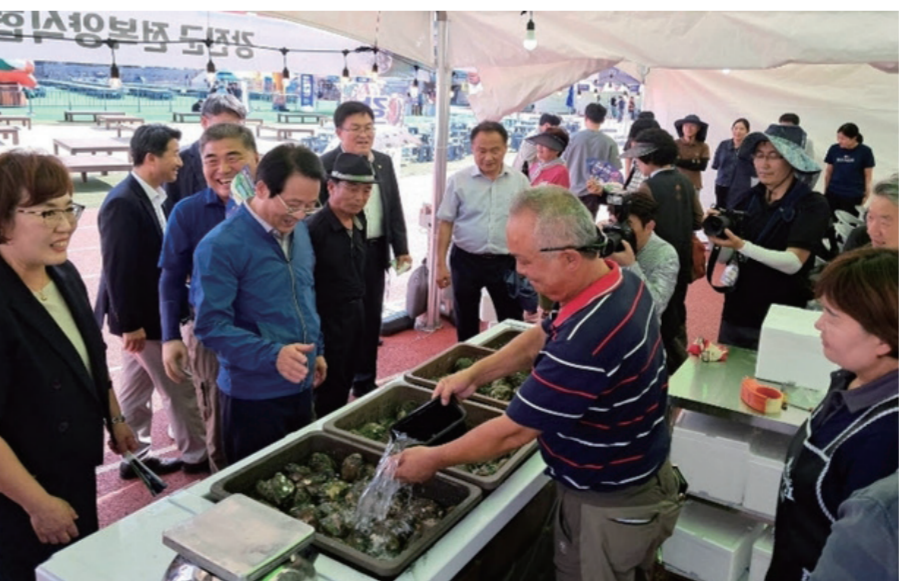
구북구 화순군수는 "공연 보기 좋은 가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수준 높은 국악 공연으로 역사문화도시인 능주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 주고 있다"며 "능주 장날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이 능주 관광 매력의 진수를 느끼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화순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강진 하맥축제 1인-1복 전북사주기운동 '성과'

3일간 3,100상자 5,700만원어치 판매



파리가 3만8,000원에, 중간 10미 5만원짜리가 3만4,000원, 13미 4만9,000원짜리가 2만8,000원, 작은 것 15미 4만원짜리가 2만4,000원에 팔려 나갔다. 평소 가격에서 40% 특별할인됐다.

행사장에 직접 나와 전복을 판매한 한 어업인은 "강진군의 전복양식 어

가 돕기 운동에 큰 힘을 얻었고 어가들도 적극 나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면서 "더 좋은 강진 참전복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명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복음식판매점인 양야수산 김양아 대표는 "기존 전복회, 전복축, 전복미역국 등을 이용한 단순함용

탈피, 수년동안 다양한 요리와 접목시켜 집중 개발한 전북버터구이, 전복강정, 전복튀김, 전복전, 회무침 등을 선보여 외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과 각광을 받았다"며 "지속적으로 남도노소 누구나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전복요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행사장 현장의 어업인들을 격려하며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강진군의 1인-1복 전북사주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브랜드 개발, 저온저장고 확충 지원, TV홈쇼핑 지원, 수족관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전복은 벨층 위에서 더디게 천천히 자라지만 벨층에서 나온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 살고 특히 강진만으로 민물 유입이 많아 단맛이 더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윤호/기자

경기도,뚜르드 디엠지(Tour de DMZ)2023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1일 개막

9.1일부터 9.5일까지 5일간 국제 청소년 도로 사이클대회와 마스터즈 도로 사이클대회, 일반 동호인 행사 개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뚜르드 디엠지(Tour de DMZ) 2023 국제자전거대회'가 1일 인천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뚜르드 디엠지(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 염원, 자전거 이용에 관한 관심 제고 등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DMZ 70년의 경계를 넘어 미래로!'

를 주제로 올해는 대회 참가선수들이 9월 1일 금요일부터 9월 5일 화요일까지 서해 강화에서 동해 고성까지 인천·경기·강원 9개 시·군을 경유하며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을 배경으로 5일간의 대장정을 펼친다.

올해 대회는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등 해외 15팀, 국내 5팀이 참가하여 우수한 청소년 선수들이 경주를 펼치는 '국제 청소년 도로 자전거(사이클) 대회'와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27개팀 209명 선수가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 자전거(사이클) 대회', 부대행사로 강화

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호인BMX 자전거 행사가 개최된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자전거 경주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고, 국경과 이념을 넘어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회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검도 정신, 이순신 장군 신념과 상통"

'이충무공 탄신기념 아트벨리 아산 제58회 전국 시·도대항 검도대회' 개최

대한검도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아산시검도회가 주관하는 '이충무공 탄신기념 아트벨리 아산 제58회 전국 시·도대항 검도대회'가 지난 3일 이순신빙상장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15개 팀 103명과 여자부 개인전 72명으로 총 175명이 참석했다.

특히 시·도 대항전은 전국 각지의 선수들이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치열한 경기가 벌어졌다.

앞서 전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48회 대한민국 고단자 검도대회 및 제17회 고단자 모범경기'가 개최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박경귀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도 20년 전 검도에 매진한 때가 있었다. 단순한 무예가 아니라, 순발력과 민첩

함을 요구하고 심신의 단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자기를 이겨내는 극기의 정신과 정신 수양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순신 장군의 신념과 상통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이 대회가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는 대회인 만큼, 내년에는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때 함께 펼쳐지길 기대한다"며 "몸과 마음의 수련을 통해 건강한 검도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껏 기량을 교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도는 전국의 도장과 동우회 모임 등 약 60만 명의 인구가 활동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 심신 단련 등을 목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어 생활체육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합동 점검

4~8일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27곳 위생 점검·수거 검사 52건 실시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4일부터 8일까지 15개 시군과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많이 소비하는 떡, 한과, 식용유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12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건강장단인 여부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합동 점검반은 위생 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

계 검사도 강화해 떡·한과·수산물 등 52건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을 행락철, 김장철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진행해 위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도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관철을 위한 성명서 발표

지금이야말로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위한 결단의 시기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8월 31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관철'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최첨단 전투기 F-35 스텔스기를 현재 40대에서 60대로 20대 추가 도입, 청주기지에 전량 배치하기 위한 국방부 예산을 2024년 정부예산안에 담자 8. 29.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더 이상 충청북도의 희생을 간과할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를 관철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 결단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청주국제공항의 하늘 길을 열지 않고, 바다가 없는 충북도의 내일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첫째, 그동안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시민단체, 출향 인사, 향우회,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서명 운동에 즉시 돌입할 것과 둘째, 다음 총선과 연계하여 충북 지역의 여야 총선 공약에 청주국제공항 피해 보상과 슬롯 확장, 활주로 연장,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넣도록 하여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셋째, 정부와 군 당국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충청북도는 "민관정협의회(가칭)"를 조직하고, 독자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며 전문가들

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한 결심을 밝혔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역대 최다이용객 317.5만 명을 달성했으며, '23년 7월말 기준 이용객 실적은 코로나19 이전('19년 동기) 대비 111.5%(1,945,881명)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4개국 7개 국제 정기노선이 운항 중이며, 9월 대만 타이페이(주 7회), 10월 중국 연길(주 3회), 11월 필리핀 클락(주 7회) 등 정기노선이 추가 운항 예정인 가운데, 연말까지 국제선 9개국 18개 노선 운항 계획이 있어 연내 최다 이용객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화/기자



태백시,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점검

태백시는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난 8월 31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중간 평가를 위해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은 사업 중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2월 결과보고서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위된 사업과 개선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사업별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보완사항 등을 할

발하게 제안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 과제들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태백시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10개 분야 60개 사업이 적용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구성 영역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유성근/기자

원주시 가을철 야외활동, 벌초·성묘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피부노출 최소화, 기피제 사용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아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진드기는 가까이 있어요!
진드기로부터 안전하려면 예방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 1 벌초·노닐 때는 옷 입으세요
- 2 기피제 뿌리세요
- 3 물속은 피하세요
- 4 씻고, 진드기가 있는지 살펴주세요
- 5 증상이나 문진 흔적이 있으면 빨리 갈라주세요
- 6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세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 ▲야외 활동 시 긴 옷, 긴 바지, 모자, 장갑, 목수건, 작업용 앞치마 등을 착용해 피부노출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며 ▲풀 위에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돛자리를 이용하며 ▲귀가 후에는 즉시 옷 세탁과 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진드기에 물렸을 때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드기를 제거하거

원주시 보건소

원주시보건소는 추석 명절, 가을철 농작물 수확 시기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쯤쯤가무시증이 있으며, 특히 SFTS의 경우 치명률이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 작업이 많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하는 일반인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야외 활동 시 긴 옷, 긴 바지, 모자, 장갑, 목수건, 작업용 앞치마 등을 착용해 피부노출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며 ▲풀 위에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돛자리를 이용하며 ▲귀가 후에는 즉시 옷 세탁과 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진드기에 물렸을 때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드기를 제거하거

나 핀셋을 이용해 부서지지 않도록 천천히 제거한 후 해당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이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잠복기인 14일간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살피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원주시보건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군인 농업인 등에게 보건소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새로운 ITS 패러다임의 중심 강릉, 모빌리티 역량 강화 박차

4일 '2023 ITS 국제세미나' 참가, 2026 ITS 세계총회 홍보 및 국내외 협력 도모

강릉시는 2026 ITS 세계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교류 확대를 통한 국내외 협력을 모색하며 모빌리티 선도도시로서의 역량 강화에 힘쓴다.

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년 ITS 국제세미나'에 참가, 해외 ITS 전문가와 관련 기업인을 대상으로 강릉시만의 '중소도시형 ITS 모델'을 제시하고 2026년에 개최될 세계총회 준비현황을 발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홍콩, 일본 ITS 아태총회 이사(BOD: Board of Director)를 비롯하여 8개국 ITS 전문가 14명, 국토교통부, 강릉시, 수원시, 한국ITS협회, 한국도로공사 및 관련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세미나를 통해 도심 모든 도로에서 ITS 첨단 기술을 구현하여 교통상황이 어떻게 개선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중소도시형 뉴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기존 대도시 중심의 총회와는 다른 강릉 세계총회만의 강점을 홍보한다.

특히, 세계총회 개최에 따라 약 90여 개국, 20만여 명이 강릉을 찾아올 것이라 예상하는 만큼 풍부한 문화적, 관광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도시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전시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올림픽 유산과 올림픽파크 내 건립될 대규모 컨벤션센터는 획기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과 결합하여 MICE 산업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ITS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ITS 국제세미나'는 강릉 세계총회, 수원 아태총회를 홍보하고 ITS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며, 관련 국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4일(월)부터 6일(수)까지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김홍규 시장은 "세계총회 개최까지 철저한 사전 준비와 강화된 홍보 활동,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시설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선도도시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남원의 기억을 인공지능으로 기록하다"

남원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선정

남원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수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하게 활용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AI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는 17억 규모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결과물을 지원받게 된다.

남원시는 '한국어 GQA 데이터' 연구 과제에 선정됐으며, 해당 과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IT기업(유클리드소프트, 엠에이치소프트, 써로마인드)이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사업 목표는 메타데이터가 기술된 대량의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하여 향후 범정부적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남원시는 남원의 다양한 모습을 인공지능 데이터로 선제 구축하여 한국적 이미지의 표본으로 활용되게 된다.

이남출/기자

이번 공모는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수집한 지역기록과 역사자료의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2차 가공한 남원 다용관(근현대기록관)의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향후 구축될 남원다용관 아카이브시스템에서 관리 및 활용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AI기술과 접목하여 스마트하고 창의로운 문화도시 남원의 밑거름이 되는 미래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한루원, 남원예촌 등 남원 주요 관광지와 근접해 있어 연계관광이 가능한 '남원다용관'(남원시 검멸1길 14)은 남원기록과 콘텐츠전시, 실감체험, 메타버스 등을 갖추고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충북경자청,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A등급

성과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 받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국 '2022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전년 B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A등급을 받았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2010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전국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제성별 우수사례 공유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전국 9개청이 모두 평가를 받는 첫해이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경자청은 기관 운영상 중앙정부와 시도 발전전략 연계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2조 26억원 MOU체결), 혁신성장팀 신

설, 기업 애로사항 간담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충북경자청은 투자협력기업 PM(Project Manager) 운영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 행정지원과 원활한 투자이행을 유도하여 투자협력기업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

맹경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과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김해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17일까지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김해시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18~39세 중소기업 재직자로 연간 총급여 3,24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되며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말 대상자를 선발한다.

김원호/기자

올해 김해시 모집인원은 66명이며 매년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또 중도이탈 방지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일하는 대전 여성, 미래를 열다!

13일 '2023 대전여성 취·창업 박람회' 개막... 채용·취업컨설팅 등 진행

대전시가 '2023 대전여성 취·창업 박람회'를 9월 13일에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일하는 대전 여성, 미래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대전시에서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행사를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 박람회와 온라인 박람회를 병행하여 추진하는데 현장박람회는 9월13일 시청 1~3층 로비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박람회는 9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18일간 이어진다.

9월 13일 개최되는 현장박람회는

100여 개 기업에서 약 400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채용관과 구직자들의 효율적인 취업을 돕는 취업컨설팅관,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관 등을 운영한다.

또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9월 13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MBTI유형별 취업공략법' 특강이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에는 '결혼이주여성 워킹맘의 우당탕탕 육아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대전시를 비롯한 일자리 기관의 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온라인 취업지원관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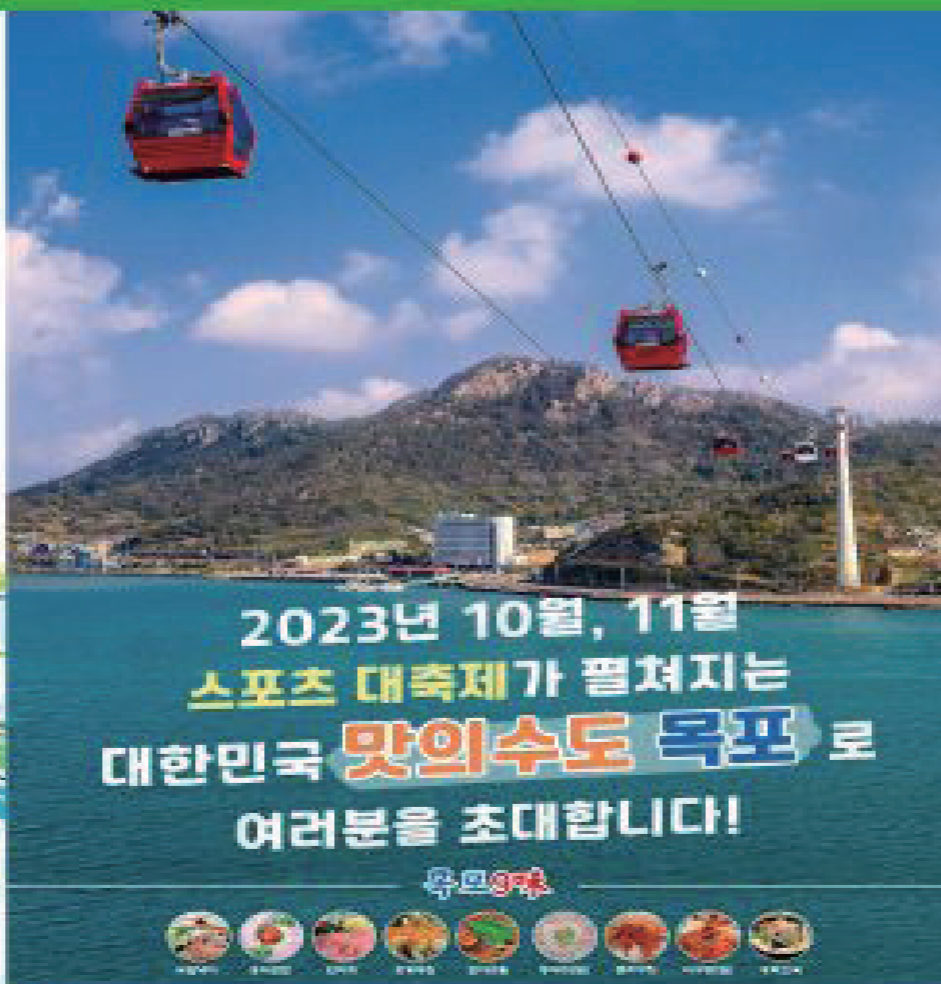
취업컨설팅, 일자리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메타버스 환경 구축으로 온라인에서도 아바타를 통해 1:1상담이 가능하며, 녹화면접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현장 박람회에서 열리는 프로그램도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며 교육 수요생의 작품도 온라인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3 대전여성 취·창업 박람회' 홈페이지와 대전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원호/기자



경북교육청, '교육감 거꾸로 멘토링' 실시

교육감이 듣고, 젊은 직원들이 말하는 청렴 소통의 시간 가져

경북교육청은 본청 스마트오피스에서 공직사회 세대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교육감 거꾸로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거꾸로 멘토링은 기존 멘토링의 개념을 탈피해, 후배 직원들이 선배나 고위 관리자의 멘토가 되어 특정 주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1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거꾸로 멘토링은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교원과 지방공무원 9명을 멘토단으로 구성했다.

올해는 △교권침해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양성평등 문제 등의 사회 현안 문제 △경북 교육정책과 관련된 젊은 직

원들의 창의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교육감이 먼저 듣고,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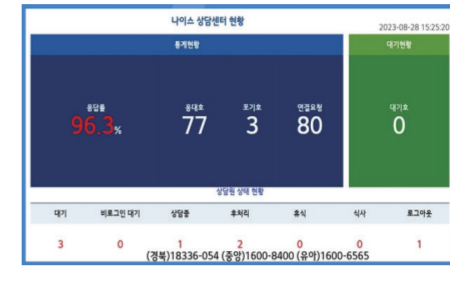
임종식 교육감은 "거꾸로 멘토링을 통해 평소 고심하던 사안을 젊은 직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의적인 개선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멘토링에서 함께 고민한 내용들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멘토링에서는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공직문화,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가 등에 대해 교육감과 멘토들이 대화를 나누며 조직 내 상하간 인식 차이 개선에 중점을 둔 바 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나이스 상담관리 솔루션 도입 효과 톡톡

연내 AI기반 자동 상담서비스 전환도 추진



경북교육청은 10년째 운영하는 나이스 상담센터의 상담 방법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상담관리 솔루션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나이스 상담센터는 경북교육청 산하 1천여 개 학교의 교무업무, 인사, 급여 등을 통합 처리하는 나이스 시스템의 사용자 지원을 위해 전화, 온라인(웹, 메신저) 상담, 원격 지원 등 월평균 3천여 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4세대 나이스 개통 시점에 맞추어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상담관리 솔루션 도입을 추진했다.

실시간 상담 전광판 운영과 함께 통화 이력을 관리, 연속 문의에 대한 상담 품질 개선, 학기 말 업무처리 시기에 대기 순번을 획기적으로 줄여 상담 응답률을 10% 이상 개선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 시기별 지원 분야 등 데이터 분석과 축적을 통해 AI 기반 자동 상담 서비스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상담센터 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확충했으며, 콜센터 전용 전화번호를 도입하고 단독 홈페이지 운영, 상시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사용자 대응 체계를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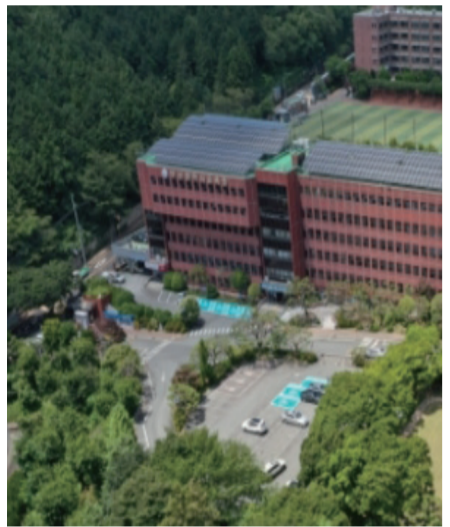
이와 함께 나이스 현상자문단(29명), 생활기록부 실무지원단(59명), 교무업무 지원방(초중등 943명) 등 다양한 채널 개설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나이스 상담센터의 한 직원은 "전년 대비 상담 건수가 1.5배 정도 늘었고 그로 인해 어려운 상담 사례도 많아졌지만, 선생님의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수확이 너무나 전해지는 감사 인사 한마디가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라고 전했다.

박성일 예산정보과장은 "나이스 상담 지원 내역 분석을 통해 시기별, 업무별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4세대 나이스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

방사능 안정성 검사, 월 1회 연 90회에서 월 2회 연 180회 확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월 1회, 연간 90건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9월부터는 월 2회, 연간 180건으로 검사를 대폭 확대해 전수조사도 연 2회(반기)에서 연 4회(분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검사는 교육청과 부산시 공무원이 학교급식 수산물 제

조·납품업체에 방문해 시료를 수거하고, 이를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월내초등학교와 일광중학교는 기장군에서 지원받은 '핵종분석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 7월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부산시의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도 가졌다. 올해 2학기부터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품질기준 준수, 원산지 관리 등 식재료 안전성 관련 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부산시와 적극 협력해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에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학교급식 식재료 대상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은 단 한 차례도 검출되지 않았다.

또, 관내 유치원·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 사용 여부 전수조사에서도 사용 사례가 없는 등 부산 학교급식에는 안전한 수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근수/기자

울산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스쿨존 통학환경 개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통학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주군청과 협업해 영하초(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북쪽 담장 도로에 길이 40m, 폭 1.5m 보도 구축 공사를 최근 완공했다.

해당 구간은 영하초 주변 유일한 보차도 미분리 구간으로 서울산두산위브 아파트와 서울산한신휴플러스아파트 등 주변 공동주택 거주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다. 이곳은 도로가 좁아 보행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시군구 스쿨존 안전 강화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영하초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공론화했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북쪽 담장 부근 학교 부지 70㎡를 무상 사용 허가하고, 울주군청에서는 보도 신설 공사를 한 뒤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7월에는 공유재산 심의회가 열렸고 영하초는 학교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울주군청에 알렸다. 울주군청은

학교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영하초 2학기 개학일에 맞춰 공사를 완공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스쿨존 내 학생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보도 신설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경찰청(서)과 상호 협력해 해당 도로의 일방통행 설정 등으로 보도를 확보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황규진/기자



전북교육청, 김병용 의회협력담당 사무관 임용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개모집을 통해 김병용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을 선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공개모집을 실시했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김병용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을 9월 4일자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은 도의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도의회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교육지원 사업 조정·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김병용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한 지역 출신 인재로 전북

대학교 언어교육원 초빙교수 및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박성현 총무과장은 "협력업무 경험이 풍부한 의회협력담당 사무관 임용으로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치의 전북교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남철/기자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제9대 남원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서도역[전북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2]

영등포구,재건축 안전진단비용 100% 무이자용자... 재건축 급물살기대

재건축 희망하는 노후 단지 대상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로 용자 지원

영등포구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무이자로 용자해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부담을 겪은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구는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현재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공동주택 중 재건축 대상 단지는 8개, 재건축 안전진단은 6개 단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편익,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용자를 통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현 제도상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선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탓에 비용 마련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재건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구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용자를 신청하면,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100% 무이자로 지원한다. 용자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최초 용자 시 기간은 3년이지만, 이후 연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용자는 1회에 한해 지원하고, 만약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용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이다.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고,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주민 대표(토지 등 소유자 최대 10명)가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비용과 반환 방법, 기한 등은 구와 단지 간 협약을 통해 정해진다.

한편 구는 '영등포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용역'도 발주하는 등 도시정비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

로 노력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용자 지원으로 노후 단지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나아지길 바란다"라며 "서울시 및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영등포가 미래지향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금천구, '북'으로 만나는 '근사한 가을 책 축제 연다

작가와 함께하는 책 대담, 다양한 공연 및 체험행사 개최



금천문화재단은 9월 16일 금나래중앙공원 일대에서 책과 축제를 함께 즐기는 '2023 금천구 도서관 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의 주제는 '다 같이 북근북근'이다. '책 읽기 좋은 가을에 만난 근사한 축제'라는 뜻과 '구민과 함께 책 읽는 근육을 키우자'라는 의미를 담았다.

금나래중앙공원 일대를 '공연구역', '체험구역', '힐링구역'으로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연구역'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한 작가와 함께하는 책 대담(북 토크)이 펼쳐진다. 한국 최초로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와 현대 과학 소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천선란 작가가 참여한다. ▲ 다가올 미래 세계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천선란, 김겨울) ▲ '북'으로 만나는 '근'사한 세상(이수지, 강혜숙, 한성민)을 주제로 관객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가족을 선정하는 '책 읽는 가족 시상식'과 주민들이 직접 만든 큰 책을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읽어주는 '빅북 읽어주는 청장님과 아이들'도 진행된다. 또한 재즈 공연, 마술 공연을 개최해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체험구역'에서는 구립도서관 4곳과 작은도서관이 준비한 11개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 성격유형검사(MBTI)와 탄생석, 독서 유형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향 찾기 ▲ 동화 속 주인공 분장 ▲ 페넌단을 재활용한 인형 만들기 ▲ 그림책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 풍선 공예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힐링구역'은 축제를 즐기는 구민이 편히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햇빛 가림막과 폭신한 의자, 등받이가 있는 종이 의자, 추천 도서로 꾸민 야외 서가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9월 15일까지 축제 사전 행사로 '우리는 금천구 독서 수비대!'를 진행한다. 도서관 6곳(가산·금나래·독산·시흥·맑은누리·책달샘숲속)을 방문해 지령을 수행하고 도장을 모아 행사장에 가져오면, 독서 수비대 배지와 상품을 받을 수 있다.(선착순 50명)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구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우리 지역 내년 사업 뭐가 좋을까?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사업 투표 진행

024년 추진 후보 사업 10개 가운데 1인 3개 온라인으로 투표 가능

서대문구가 이달 10일 자정까지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주민 제안 가운데 구청 관련 부서의 검토와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1차 및 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명수어린이공원 인근 신호등 앞 그늘막 설치 ▲연가어린이공원 내 울타리 보수 ▲인왕산 무궁화공원 진입로 목재 휴막이 교체 ▲가재울중앙근린공원 내 무료 와이파이 설치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등이다.

또한 ▲거꾸로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별관 내 놀이·공유 공간 운영 ▲가재울초등학교 사거리 그늘막 설치 ▲행정차량 내 안전운행을 위한 음주측정장치 설치 ▲천연동 독립문로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교체 등이 있다.

서대문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QR코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 후 '서대문구'로 검색)에서 10개 제안 사업 중 선호하는 3개를 선택할 수 있다. 구는 투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증

정한다. 투표 결과는 이달 12일 오후 6시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와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에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4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투표기간: 2023. 8. 29.(화) ~ 9. 10.(일)
 참여대상: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
 투표방법: 서울시 엠보팅에서 서대문구 검색 후 투표
 투표방법: 투표 참여자 100명 추첨, 커피쿠폰 증정
 금라금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총회(2023. 9. 12.(화) 18시 구청 대회의실)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

10개 사업중 3개 사업에 투표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소요예산(단위:만원)
1	명수어린이공원 인근 신호등 불 그늘막 설치	3,000
2	남가리공원 명수어린이공원 내 울타리 보수	20,000
3	홍은초등학교 인왕산 무궁화공원 목재 휴막이 교체	18,000
4	북가리공원 가재울중앙근린공원 내 무료 와이파이 설치	45,200
5	서대문구 배스탕공원 내 비가림막 설치	48,000
6	북가리공원 거꾸로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100,000
7	서대문구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별관 내 놀이공원을 활용한 놀이·공유공간 운영	10,000
8	남가리공원 가재울초등학교 사거리 그늘막 설치	13,000
9	서대문구 행정차량 내 안전운행을 위한 음주측정장치 설치	1,000
10	천연동 독립문로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교체	12,000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02)330-1101

어메니티장흥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3

2023. 9. 8.(금) - 9. 14.(목) / 7일간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금호워터폴리스

동서변지구, 김단산업단지, 김호워터폴리스, 아시아폴리스, 금호강, 대구도시철도 4호선, 경부고속도로, 진입도로

금호워터폴리스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공급안내

1. 공급대상 토지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김단동 310번지 일원
-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유치업종	필지수	면적(㎡)	공급가격(원)
산업 시설용지 (제조 시설용지)	전자정보통신	9	999~1,602	1,371,027,000 ~ 2,155,330,000
	자동차 및 운송장비	6	1,425~3,037	1,917,195,000 ~ 4,004,284,000
	신소재	6	1,654~2,827	2,225,622,000 ~ 4,103,955,000
	메카트로닉스	17	1,361~4,313	1,885,937,000 ~ 6,038,200,000
복합용지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2	2,995~3,205	6,408,397,000 ~ 6,508,135,000

2. 입주가능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산업 시설용지 (제조 시설용지)	전자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 장비 제조업(C28)
	자동차 및 운송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신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기공제품 제조업(C25)
	메카트로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단, A10블록(안광학산업 집적지)은 C27193(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는 완제품(해당사업체에서 제조·원료된 제품 또는 위탁 생산한 제품) 제조업체에 한함
복합용지	전자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 장비 제조업(C28)
	메카트로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복합용지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방송업(J60)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M62) 정보서비스업(M63)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3.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산업 시설용지 (제조 시설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적합한 제조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사)김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복합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 및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사)김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4. 공급일정 및 장소 (※방문접수만 가능)

구분	기간	장소
입주 및 분양신청 접수, 신청예약금 납부	2023.09.18.(월) ~ 09.20.(수) (10:00 ~ 17:00)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강당)
입주(적격)업체 심사	2023.09.21.(목) ~ 09.27.(수)	-
입주(적격)업체 선정결과 발표	2023.10.04.(수) 10:00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dudc.or.kr)
A10블록(안광학산업 집적지)필지추첨	2023.10.04.(수) 15:00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강당)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	2023.10.10.(화) ~ 10.12.(목) (10:00 ~ 17:00)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강당)

5. 대금납부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공급가격의 10% (계약체결 시)	공급가격의 75% (매4개월 단위 3회 균등 분할납부)	공급가격의 15% (별도 통지)

6. 공급문의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관련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2층) ☎ (053)350-0337, 0334
입주심사 관련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4층) ☎ (053)803-6022
입주업종 및 입주계약체결 관련	(사)김단산업단지 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북구 김단로 135 김단팩토리빌리 101동 301호) ☎ (053)383-8810~1

※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9. 04.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도시개발공사
Daegu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분양문의

053) 350-0300